

#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육아지원 수요와 정책적 함의<sup>1)</sup>

유해미 선임연구원

현 정부에서 도입되는 부모급여가 0~1세아를 둔 가구의 육아지원 욕구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다루고, 이들 가구의 양육 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겨진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영아를 둔 부모들은 가정에서 양육할 시에 현금지원 요구가 두드러지나, 이에 못지않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는 맞벌이 가구는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일하는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집 근처에서 찾기 어렵고, 홑벌이가구는 '고립된 육아'로 인한 고충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양육 시의 어려움은 현금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종일제보육을 포함한 서비스 다양화와 육아휴직제도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1. 들어가며: 영아 대상 현금지원 강화와 정책적 함의

현 정부에서 주목할 만한 육아지원으로는 영아자녀에게 획기적인 수준으로 지급되는 현금지원을 들 수 있다. 국정과제로 명시된 부모급여는 2023년에 도입되어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게 100만원, 1세아는 매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sup>2)</sup> 현재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10만원에 불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이 최대 20만원

이며, 올해에 도입된 영아수당이 2025년까지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하려 계획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매월 100만원에 달하는 부모급여는 가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인식된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영아를 둔 가구에게 이처럼 현금지원을 큰 폭으로 강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부모급여는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고 한다.<sup>3)</sup> 그런데 이에 따르면 다음의 원론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영아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다른 연령에 비해 현금지원 수요가 높은 것인지,

1) 이 글은 2021년에 수행된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의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8. 19). 보건복지부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 p. 5.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8. 19). 보건복지부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 p. 5.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현금지원을 강화하게 되면 이들 가구의 양육 시 어려움을 의미있게 완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영아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지원 욕구가 유아에 비해 다양하다는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유아와는 달리, 영아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요구가 높고,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관보육 이외에 가정내보육 수요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육아지원 요구의 특성으로 인해 영아자녀에 대한 육아지원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 주요 전략으로 널리 강조되어왔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는 여성고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전업주부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간의 육아지원이 ‘2012년 영아 무상보육 실시 등 서비스 비용지원’에 주력하였으며, 지난 정부에서 믿을 수 있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보육 인프라 확충 목표를 설정하였다면, 현 정부의 부모급여 도입은 그 방향성 측면에서 전환이 감지된다. 일반적으로 영아의 경우 서비스에 비해 현금지원 비중이 높은 것은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되는데, 부모급여의 경우는 육아휴직제도

와 연계되지 않고 정액으로 보편적으로 지급되므로 그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이 글에서는 영아자녀를 둔 가구에서 선호하는 양육방식과 지원방식 등 수요를 파악하여 현금지원과의 부합성을 진단하고,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짚어야 하는 과제들을 언급하였다.<sup>4)</sup>

## 2. 영아자녀의 선호하는 양육방식과 선택권 보장 여부

영아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즉 기관보육과 가정내보육에 대한 수요를 합하면 부모 돌봄에 대한 수요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므로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 가. 선호하는 양육방식

부모의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시기와 어린이집 입소에 적합한 시기가 모두 약 31개월을 초과하므로 0~1세아의 경우는 가정내양육에 대한 선택이 일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4) 이하 표는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임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월평균 가구소득		자녀연령(막내)	
199만원 이하	3.0( 15)	0~11개월	41.1(208)
200~299만원	13.4( 68)	12~23개월	58.9(298)
300~399만원	25.5(129)	평균(개월)	12.8(506)
400~499만원	16.8( 85)	맞벌이 가구 여부	
500~599만원	15.0( 76)	맞벌이	51.6(261)
600~699만원	10.3( 52)	홀벌이	46.8(237)
700~799만원	5.7( 29)	모두 근로 안함	1.6( 8)
800만원 이상	10.3( 52)		
계(수)			100.0(506)

〈표 1〉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자녀연령

단위: %(명), 개월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2개월 미만	12개월~18개월 미만	18개월~24개월 미만	24개월~36개월 미만	36개월~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계(수)	평균(개월)	
전체	0.6	1.8	3.4	9.5	7.3	23.5	29.1	24.9	100.0 (506)	33.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0.8	3.1	3.1	12.3	8.0	24.1	28.4	20.3	100.0 (261)	31.3	
홀벌이 가구	0.4	0.4	3.0	6.3	6.3	23.2	30.0	30.4	100.0 (237)	35.6	
모두 근로안함	0.0	0.0	25.0	12.5	12.5	12.5	25.0	12.5	100.0 (8)	26.4	
F/ $\chi^2$ (df)				28.324(14)*							5.480**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3.3	0.0	6.7	13.3	13.3	6.7	33.3	13.3	100.0 (15)	25.4	
200~299만원	0.0	4.4	7.4	14.7	4.4	25.0	19.1	25.0	100.0 (68)	30.2	
300~399만원	0.8	1.6	2.3	6.2	8.5	31.8	28.7	20.2	100.0 (129)	32.4	
400~499만원	0.0	0.0	3.5	10.6	8.2	18.8	24.7	34.1	100.0 (85)	36.1	
500~599만원	0.0	1.3	1.3	10.5	6.6	23.7	31.6	25.0	100.0 (76)	33.5	
600~699만원	0.0	1.9	1.9	13.5	5.8	21.2	34.6	21.2	100.0 (52)	33.7	
700~799만원	0.0	3.4	3.4	3.4	10.3	20.7	31.0	27.6	100.0 (29)	35.1	
800만원 이상	0.0	1.9	3.8	5.8	5.8	17.3	38.5	26.9	100.0 (52)	34.8	
F/ $\chi^2$ (df)				81.117(49)**							1.439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54-155.

\*  $p < .05$ , \*\*  $p < .01$

된다. 구체적으로 0~1세아를 둔 부모들이 직접 양육을 희망하는 자녀연령은 평균 33.2개월로 조사되었으며, 36~48개월이 29.1%, 48개월 이상 24.9%, 24개월~36개월 미만 23.5% 순이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최대 24개월까지 자녀를 직접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복귀를 위한 대리양육이 희망하는 방식이 아닐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에 적합한 자녀연령은 평균 31.9개월로, 앞서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시기와 대체로 부합하며, 24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9%에 그쳤다. 적절한 어린이집 입소 시기에 대해서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맞벌이 가구에서 30.6개월로 조사되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적정월령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맞벌이 가구의 적합한 양육방식에 대해서는 0세아와 1세아의 경우 부모의 직접돌봄이 각각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46.0%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가정내보육이 혈연과 비혈연을 합하여 각각 38.1%와 38.7%, 어린이집은 공히 11.3%로 조사되었다.

〈표 2〉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어린이집 입소 적정 자녀연령

단위: %(명), 개월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2개월 미만	12개월~18개월 미만	18개월~24개월 미만	24개월~36개월 미만	36개월~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계(수)	평균(개월)
전체	1.4	2.2	5.1	12.1	7.1	21.3	25.1	25.7	100.0 (506)	3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1	2.7	6.9	13.8	8.4	19.5	23.0	24.5	100.0 (261)	30.6
홀벌이 가구	1.3	1.7	3.0	10.5	5.9	23.6	27.0	27.0	100.0 (237)	33.2
모두 근로안함	12.5	0.0	12.5	0.0	0.0	12.5	37.5	25.0	100.0 (8)	34.1
F/ $\chi^2$ (df)				19.25(14)						1.61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0.0	6.7	6.7	6.7	0.0	6.7	20.0	33.3	100.0 (15)	27.5
200~299만원	4.4	5.9	5.9	8.8	7.4	26.5	22.1	19.1	100.0 (68)	28.3
300~399만원	0.8	0.8	5.4	10.9	10.9	23.3	28.7	19.4	100.0 (129)	31.2
400~499만원	0.0	2.4	4.7	12.9	5.9	22.4	23.5	28.2	100.0 (85)	33.3
500~599만원	0.0	0.0	2.6	22.4	2.6	22.4	19.7	30.3	100.0 (76)	32.3
600~699만원	0.0	1.9	7.7	9.6	15.4	15.4	28.8	21.2	100.0 (52)	30.8
700~799만원	0.0	3.4	6.9	6.9	0.0	27.6	27.6	27.6	100.0 (29)	32.9
800만원 이상	0.0	1.9	3.8	9.6	3.8	13.5	26.9	40.4	100.0 (52)	36.8
F/ $\chi^2$ (df)				97.343(49)***						1.463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55-156.

\*\*\*  $p < .001$

〈표 3〉 맞벌이 가구에 적합한 양육방식(0세아/1세아): 1순위/1+2순위

단위: %(명)

구분	0세아		1세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포함)	46.0	54.3	44.7	52.6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23.1	66.2	25.5	60.5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15.0	27.7	13.2	29.6
어린이집 이용	11.3	32.2	11.3	35.4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근제 활용하여 돌봄	4.5	19.6	5.3	21.9
기타	0.0	0.0	0.0	0.0
계(수)	100.0(506)	(506)	100.0(506)	(506)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5, 168 재구성

## 나. 양육방식의 부모 선택권 보장 여부

현재 0~1세아의 주된 양육방식이 희망하는 양육방식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8.9%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율은 홀벌이 가구에 비해 낮아 74.7%에 그쳤다. 주양육자별로는 희망하는 양육방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87.6%로 가장 높고,

〈표 4〉 24개월 미만 자녀의 희망하는 양육방식 여부

단위: %(명)

구분	주양육자의 희망 양육방식 여부		계(수)	
	희망 양육방식임	희망 양육방식 아님		
전체	78.9	21.1	100.0	(506)
자녀연령				
0~11개월	78.4	21.6	100.0	(208)
12~23개월	79.2	20.8	100.0	(298)
$\chi^2$ (df)	0.05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74.7	25.3	100.0	(261)
홀벌이 가구	84.4	15.6	100.0	(237)
모두 근로안함	50.0	50.0	100.0	( 8)
$\chi^2$ (df)	11.032(2)**			
주양육자				
부모(육아휴직 포함)	87.6	12.4	100.0	(299)
어린이집	68.0	32.0	100.0	(125)
아이돌보미	76.9	23.1	100.0	( 26)
조부모(또는 친인척)	57.4	42.6	100.0	( 54)
민간 육아도우미	50.0	50.0	100.0	( 2)
$\chi^2$ (df)	38.58(4)***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33, 134 재구성

\*\*  $p < .01$ , \*\*\*  $p < .001$

〈표 5〉 (현재 주양육자가 희망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24개월 미만 자녀의 희망 양육방식

단위: %(명)

구분	부모 (육아휴직 포함)	어린이집	아이 돌보미	조부모 (또는 친인척)	민간 육아 도우미	기타	계(수)
전체	42.1	15.0	29.0	7.5	5.6	0.9	100.0 (107)
자녀연령							
0~11개월	46.7	8.9	31.1	4.4	6.7	2.2	100.0 (45)
12~23개월	38.7	19.4	27.4	9.7	4.8	0.0	100.0 (62)
$\chi^2$ (df)	4.913(5)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3.0	9.1	27.3	7.6	3.0	0.0	100.0 (66)
홀벌이 가구	24.3	27.0	32.4	8.1	5.4	2.7	100.0 (37)
모두 근로안함	25.0	0.0	25.0	0.0	50.0	0.0	100.0 (4)
$\chi^2$ (df)	27.949(10)**						
출생순위							
첫째	49.2	15.3	22.0	6.8	6.8	0.0	100.0 (59)
둘째	36.6	17.1	34.1	9.8	2.4	0.0	100.0 (41)
셋째 이상	14.3	0.0	57.1	0.0	14.3	14.3	100.0 (7)
$\chi^2$ (df)	23.683(10)**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36.

\*\*  $p < .01$

〈표 6〉 현금지원 강화 시에도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하기 힘든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7.5	11.2	28.0	19.6	18.7	14.0	0.9	100.0(107)
현재 주양육자								
부모(육아휴직 포함)	0.0	0.0	30.2	30.2	20.8	17.0	1.9	100.0(53)
어린이집	12.5	21.9	31.3	0.0	25.0	9.4	0.0	100.0(32)
아이돌보미	16.7	33.3	0.0	50.0	0.0	0.0	0.0	100.0(6)
조부모	18.8	18.8	25.0	12.5	6.3	18.8	0.0	100.0(16)
민간 육아도우미	0.0	0.0	0.0	0.0	0.0	0.0	0.0	0.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0)

주1: ① 직접양육하고 싶으나 시간제보육시설(일시돌봄)이 집 근처에 없어서 ② 직접양육하고 싶으나 집 근처에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사랑놀이터 등)가 부족해서 ③ 육아휴직을 희망하나 휴직급여가 낮아서 활용하기 어려움 ④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나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 집근처에 없어서 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이용하기 쉽지 않아서 ⑥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고 싶으나 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주2: 이 연구에서 현금지원은 구체적으로 영아수당 지급을 말함.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86.

그 다음으로 아이돌보미가 76.9%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는 조부모(또는 친인척)에 비해 높은 68.0%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재 0~1세아의 주양육자가 희망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응답한 가구(107사례)가 희망하는 양육방식으로는 부모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서비스 즉, 아이돌보미 29.0%, 어린이집 15.0%를 합하면 44%로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선호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아에게 현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가

구에서 해당 사유로는 부모가 양육 중인 가구의 경우에는 '낮은 육아휴직 급여'와 '믿을만한 어린이집의 부족'을 들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경우에는 낮은 육아휴직 급여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을 지목하였다.

### 3. 영아자녀 양육의 어려움

0~1세아 양육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과도한 양육비용을 지목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믿을 만한 보육시설의 부족', '자녀돌봄 시간의 부족', '고립

〈표 7〉 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 시 어려움: 1순위/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자녀의 양육비용이 많이 듦	36.4	47.8
집 근처에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있으나 믿을 만한 기관이 없음	15.6	30.4
장시간노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음	13.6	31.6
종일 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	12.3	34.0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직장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움	10.9	30.6
집 근처에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없음	7.1	13.0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잘 모름	3.4	9.3
기타	0.8	3.0
계(수)	100.0(506)	(506)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9.

## 집 중 조 명

〈표 8〉 맞벌이 여부별 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 시 어려움(1순위 기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36.4	7.1	15.6	13.6	10.9	12.3	3.4	0.8	100.0(506)
자녀연령									
0~11개월	36.1	10.1	14.9	13.9	8.7	13.5	2.4	0.5	100.0(208)
12~23개월	36.6	5.0	16.1	13.4	12.4	11.4	4.0	1.0	100.0(298)
$\chi^2$ (df)	7.965(7)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7.2	8.0	16.1	18.8	10.7	6.9	1.9	0.4	100.0(261)
홀벌이 가구	35.9	6.3	15.2	8.4	11.4	17.7	3.8	1.3	100.0(237)
모두 근로안함	25.0	0.0	12.5	0.0	0.0	25.0	37.5	0.0	100.0( 8)
$\chi^2$ (df)	57.081(14)***								

주: ① 자녀의 양육비용이 많이 듦 ② 집 근처에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없음 ③ 집 근처에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있으나 믿을 만한 기관이 없음 ④ 장시간노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음 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직장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움 ⑥ 종일 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 ⑦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잘 모름 ⑧ 기타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50.

\*\*\*  $p < .001$

된 육아로 인한 고충'이 제기되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와도 관련되고,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가. 0~1세아 양육의 어려움

0~1세아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과도한 양육비가 1순위 기준으로 36.4%, 1순위와 2순위를 합

하여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믿을만한 보육시설의 부족',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의 부족', '종일동안 혼자 자녀를 돌보는 것이 힘들' 등이 유사한 비율도 지적되므로 이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맞벌이 여부별로는 양육비 부담을 제외하면, 맞벌이 가구에서는 보육시설의 부족과 자녀돌봄 시간의 부족이, 홀벌이 가구에서는 고립된 육아의 어려움이 두드러져서 차이를 보인다.

〈표 9〉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주된 퇴직 사유

단위: %(명)

구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주된 퇴직 사유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33.1	28.1	30.6	5.0	3.3	100.0 (121)
자녀연령						
0~11개월	29.5	39.3	23.0	3.3	4.9	100.0 ( 61)
12~23개월	36.7	16.7	38.3	6.7	1.7	100.0 ( 60)
$\chi^2$ (df)	10.013(4)*					

주: ① 육아휴직을 희망하였으나 실제 이용하기 힘들어서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③ 직장 여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애초에 자녀를 직접양육하기를 희망해서 ⑤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어서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53.

\*  $p < .05$

## 나. 경력단절 사유

영아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그 사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가구에서 주된 퇴직 사유로는, '육아휴직을 희망하였으나 실제 이용하기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여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30.6%,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28.1%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0~11개월 자녀를 둔 경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을 가장 주된 이유로서 해당 응답률은 39.3%로 높게 나타난다.

## 다. 양육비용과 서비스 병행이용

### 1) 서비스 이용비용

우선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평균 850,500원이고, 0~11개월 자녀와 맞벌이 가구에서 각각 993,200원과 1,034,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나타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799만

〈표 10〉 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비용/부담 정도: 돌봄서비스 이용비용/부담 정도

단위: 만원(수), %(명), 점

구분	월평균 비용		비용부담 정도				계(수)	4점 평균
	금액	(수)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부담됨	매우 부담됨		
전체	85.05	(506)	8.5	11.9	48.4	31.2	100.0 (506)	3.02
자녀연령								
0~11개월	99.32	(208)	8.7	13.0	47.6	30.8	100.0 (208)	3.00
12~23개월	75.13	(298)	8.4	11.1	49.0	31.5	100.0 (298)	3.04
t/ $\chi^2$ (df)	2.605**			24.339(21)				-0.4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03.40	(261)	5.7	10.3	51.0	33.0	100.0 (261)	3.11
홀벌이 가구	62.04	(237)	11.8	13.9	45.1	29.1	100.0 (237)	2.92
모두 근로안함	80.13	( 8)	0.0	0.0	62.5	37.5	100.0 ( 8)	3.38
F/ $\chi^2$ (df)	11.428**			10.264(6)				4.550*
출생순위								
첫째	76.57	(279)	9.0	12.9	46.2	31.9	100.0 (279)	3.01
둘째	94.74	(195)	8.2	11.3	49.2	31.3	100.0 (195)	3.04
셋째 이상	95.35	( 32)	6.3	6.3	62.5	25.0	100.0 ( 32)	3.06
F/ $\chi^2$ (df)	1.826			3.490(6)				0.080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73.00	( 15)	6.7	13.3	53.3	26.7	100.0 ( 15)	3.00
200~299만원	63.20	( 68)	5.9	13.2	47.1	33.8	100.0 ( 68)	3.09
300~399만원	71.32	(129)	7.0	10.1	46.5	36.4	100.0 (129)	3.12
400~499만원	66.06	( 85)	7.1	7.1	52.9	32.9	100.0 ( 85)	3.12
500~599만원	77.01	( 76)	13.2	22.4	47.4	17.1	100.0 ( 76)	2.68
600~699만원	93.91	( 52)	7.7	9.6	55.8	26.9	100.0 ( 52)	3.02
700~799만원	143.68	( 29)	10.3	3.4	44.8	41.4	100.0 ( 29)	3.17
800만원 이상	149.79	( 52)	11.5	13.5	42.3	32.7	100.0 ( 52)	2.96
F/ $\chi^2$ (df)	2.594*			24.339(21)				2.249*

주: 4점 평균은 '전혀 부담 안됨' 1점 ~ '매우 부담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47-148.

\*  $p < .05$ , \*\*  $p < .01$

## 집 중 조 명

원과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각각 1,436,800원과 1,497,900원으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해당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약간 부담됨+매우 부담됨)은 79.6%(평균 3.02점, 4점 만점)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평균 3.1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구에게 부모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조사되었다. 해당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59.4%로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 가구에

서 63.5%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어린이집과 병행하여 이용 중인 서비스 이용비용은 평균 724,4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맞벌이 가구에서 821,500원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가구에서 1,040,9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행이용 중인 서비스 유형별로는 민간 육아도우미가 평균 829,800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조부모 568,400원, 아이돌보미 484,200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가구에서 서비스를 병행이용 시는 해당 비용의 부담을 안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11〉 어린이집 이용 중인 24개월 미만 자녀의 서비스 병행이용(정기적)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과 병행이용 중인 서비스 유무		계(수)
	병행이용 서비스 있음	병행이용 서비스 없음	
전체	44.5	55.5	100.0(506)
자녀연령			
0~11개월	48.1	51.9	100.0(208)
12~23개월	41.9	58.1	100.0(298)
$\chi^2$ (df)	1.864(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9.4	40.6	100.0(261)
홀벌이 가구	29.5	70.5	100.0(237)
모두 근로안함	0.0	100.0	100.0( 8)
$\chi^2$ (df)	51.331(2)***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0.0	40.0	100.0( 15)
200~299만원	33.8	66.2	100.0( 68)
300~399만원	41.1	58.9	100.0(129)
400~499만원	38.8	61.2	100.0( 85)
500~599만원	42.1	57.9	100.0( 76)
600~699만원	48.1	51.9	100.0( 52)
700~799만원	58.6	41.4	100.0( 29)
800만원 이상	63.5	36.5	100.0( 52)
$\chi^2$ (df)	16.675(7)*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3.

\*  $p < .05$ , \*\*\*  $p < .001$

〈표 12〉 어린이집 이용 중인 24개월 미만 자녀의 병행이용 서비스 월평균 지출비용

단위: 만원(명)

구분	조부모 (또는 친인척)	민간 육아 도우미	아이 돌보미	이웃	방문 서비스	기타	월평균 총비용	(수)
전체	56.84	82.98	48.42	50.86	32.00	5.00	72.44	(274)
자녀연령								
0~11개월	61.20	75.22	49.00	53.33	0.00	0.00	74.60	(122)
12~23개월	53.52	89.85	47.89	49.00	32.00	5.00	70.71	(152)
t							0.4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65.43	82.15	46.03	51.00	32.00	5.00	80.25	(196)
홀벌이 가구	36.08	84.69	55.62	50.00	0.00	0.00	55.14	(78)
모두 근로안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F							6.522*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0.00	36.00	20.00	50.00	0.00	0.00	35.78	(9)
200~299만원	57.33	65.50	26.40	0.00	0.00	0.00	60.22	(26)
300~399만원	52.11	95.50	39.58	0.00	32.00	0.00	64.94	(61)
400~499만원	43.04	44.29	36.00	0.00	0.00	5.00	48.27	(39)
500~599만원	59.80	67.25	62.14	10.00	0.00	0.00	77.44	(41)
600~699만원	57.75	89.71	58.00	15.33	0.00	0.00	84.76	(35)
700~799만원	67.29	123.33	42.60	0.00	0.00	0.00	89.71	(22)
800만원 이상	69.60	133.33	80.63	125.00	0.00	0.00	104.09	(41)
F							2.522*	

주: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입.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p. 146.

\*  $p < .05$

## 2) 육아용품 구입비용

0~1세아의 육아용품 구입비용은 471,300원으로, 0~11개월과 맞벌이 가구에서 각각 557,100원과 538,200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799만원과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 각각 687,200원과 771,200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해당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인식은 돌봄서비스와는 달리 39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13〉 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비용/부담 정도: 육아용품 구입비용/부담 정도

단위: 만원(명), %(명), 점

구분	월평균 비용		비용부담 정도				4점 평균	
	평균	(수)	전혀 부담 안 됨	부담 안 됨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수)
전체	47.13	(506)	4.0	14.6	55.9	25.5	100.0(506)	3.03
자녀연령								
0~11개월	55.71	(208)	4.8	17.3	54.8	23.1	100.0(208)	2.96
12~23개월	41.15	(298)	3.4	12.8	56.7	27.2	100.0(298)	3.08
t/ $\chi^2$ (df)	2.792**			3.281(3)				-1.714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3.82	(261)	3.8	11.1	59.8	25.3	100.0(261)	3.07
홀벌이 가구	39.37	(237)	4.2	18.6	52.7	24.5	100.0(237)	2.97
모두 근로안함	56.75	( 8)	0.0	12.5	25.0	62.5	100.0( 8)	3.50
F/ $\chi^2$ (df)	5.138*			11.999(6)				2.530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8.40	( 15)	6.7	13.3	40.0	40.0	100.0( 15)	3.13
200~299만원	39.13	( 68)	1.5	11.8	60.3	26.5	100.0( 68)	3.12
300~399만원	36.43	(129)	2.3	16.3	48.1	33.3	100.0(129)	3.12
400~499만원	42.48	( 85)	3.5	8.2	64.7	23.5	100.0( 85)	3.08
500~599만원	48.46	( 76)	7.9	18.4	57.9	15.8	100.0( 76)	2.82
600~699만원	46.98	( 52)	1.9	19.2	57.7	21.2	100.0( 52)	2.98
700~799만원	68.72	( 29)	3.4	6.9	65.5	24.1	100.0( 29)	3.10
800만원 이상	77.12	( 52)	7.7	19.2	50.0	23.1	100.0( 52)	2.88
F/ $\chi^2$ (df)	3.377**			26.313(21)				1.787

주: 4점 평균은 '전혀 부담 안됨' 1점 ~ '매우 부담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9.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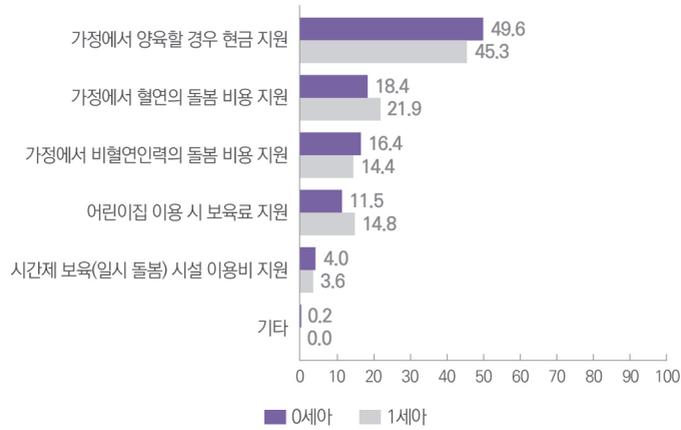
## 4. 선호하는 지원방식과 육아지원의 도움정도 인식

비용지원 방식에 대한 요구는 0세아와 1세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시에 현금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가운데 0세아의 경우는 가정보육서비스, 1세아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서 해당 수요에의 대응이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0세아(0~11개월)의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육아휴직제도가 평균 3.81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3.80점, 가정양육수당 3.75점, 0~2세 보육료 지원(연장보육) 3.7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구는 보육서비스 중에서 특히 연장보육과 시간연장형보육 지원에서 각각 3.74점과 3.75점으로 높은 수요를 보인 반면에 홀벌이 가구에서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수요가 3.82점으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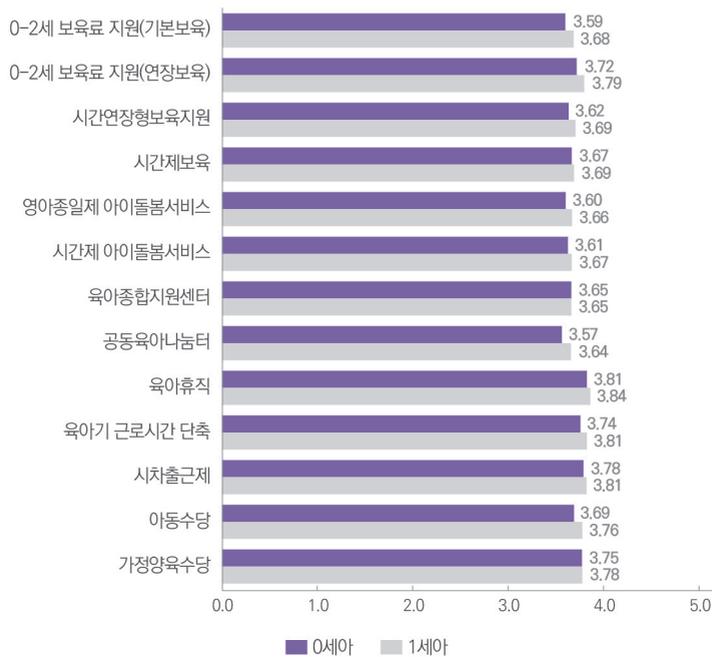


[그림 1]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0세대/1세대 비교

주: 각 항목별 응답 비율은 1순위 응답 기준임.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4.

단위 : 점



[그림 2] 육아지원제도 도움정도 인식: 0세대/1세대 비교

주: 평균값은 각 제도별 도움 정도 인식을 5점('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2).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77.

〈표 14〉 0세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정도 인식: 맞벌이 가구 여부별

단위: 점(명)

구분	0세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도움 정도 인식: 5점 평균					(수)
	전체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모두 근로안함	F	
0~2세 보육료 지원(기본보육)	3.59	3.62	3.57	3.00	4.941*	(506)
0~2세 보육료 지원(연장보육)	3.72	3.74	3.70	3.38	0.681	(506)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3.62	3.75	3.49	3.50	4.651**	(506)
시간제보육	3.67	3.68	3.65	4.00	0.641	(506)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3.60	3.61	3.59	3.63	0.030	(506)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3.61	3.63	3.60	3.13	1.354	(506)
육아종합지원센터	3.65	3.72	3.62	2.38	9.097***	(506)
공동육아나눔터	3.57	3.61	3.52	3.25	1.160	(506)
육아휴직	3.81	3.80	3.83	3.75	0.067	(50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74	3.75	3.72	3.88	0.144	(506)
시차출근제	3.78	3.78	3.77	4.13	0.623	(506)
배우자 출산휴가	3.80	3.81	3.78	4.00	0.267	(506)
아동수당	3.69	3.69	3.68	3.88	0.161	(506)
가정양육수당	3.75	3.69	3.82	4.00	1.565	(506)

주: 1) 5점 평균은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5$ , \*\*  $p < .01$ , \*\*\*  $p < .001$

1세아(12~23개월)의 경우에도 0세아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제도가 평균 3.84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와 시차출근제가 공히 3.81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0세아에 비해 0~2세 보육료 지원(연장보육)이 3.79점으로 가정양육수당 3.78점에 비해 높은 수요를 보였다.

## 5. 나오며: 영아 대상 현금지원 강화의 가능성과 한계점

앞서 다룬 0~1세아의 양육 시 어려움과 육아 지원 욕구를 종합해보면, 현금지원의 강화는 효과성 측면에서 다음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동시에 지닌다.

우선 부모급여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육아 지원 욕구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육아휴직을 선택하였으나 낮은 휴직급여로 인해 줄어든 맞벌이 가구의 가구소득을 보전하여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휴직급여 수준이 낮아서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가구에는 부모가 직접 어린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보다는 가정내보육을 더 선호하는 가구에 대해 해당 비용의 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다. 게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나, 돌봄의 공백이나 장시간보육을 기피하여 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가구 중에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병행할 시에는 약 83만원이 소요되며, 특히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해당 비용이 120~130만원선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홀벌이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소득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현금지원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육아지원 욕구가 있으므로 한계점도 남겨져 있다. 현금을 더 준다고 해도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할 수 없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거나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고 싶으나 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돌봄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로서, 영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내보육 즉 공적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포괄한다. 2012년부터 영아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무상보육이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가구에 영아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휴직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일하려는 여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단, 이때 영아보육의 지리적 접근성과 더불어 '서비스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보육의 질이 높을수록 여성고용률이 높고, 이는 특히 3세 미만에서 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Misra, Budig, & Boeckmann, 2012: 28)<sup>5)</sup>. 이와 더불어 가정내보육에 대한 선호에 부응하기 위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들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는 그간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제도 이용가능성을 제고하려

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단, 휴직제도의 강화 시에는 특히 여성 위주로 활용되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성 위주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시에는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고, 소득과 경력 등에서도 남성에 비해 불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직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홀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여의치 않을 수 있다. 현금을 늘려서 지원한다고 해서 고립된 육아 상황이 저절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 근처에서 일시보육을 위한 시간제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자녀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녀양육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때 특히 지리적 접근성의 지역적 격차가 야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자녀의 육아지원 수요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므로 현금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온전히 충족될 수는 없다. 영아자녀를 둔 가구는 양육비용 이외에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영아자녀에서 높게 나타나는 현금지원 수요는 단지 자녀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의 증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손실 이외에도 영아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가정내보육을 선호하거나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이 자리잡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제고를 새겨둘 필요가 있다.

5) Misra J., Budig M., & Boeckmann I.(2012). Work-family policies and the effects of children on women's employment hours and wages. *Work and Family Policy: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